“대장경 조판기술 계승, 각수 양성서 시작”

11월 28일,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대장경판 조판기술 복원’ 조명
복합 역량 갖춘 각수 양성 필수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은 ‘대장경판의 조판기술과 인쇄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팔만대장경의 전통 조판기술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문 판각 인력인 각수(刻手)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안준영 이산책판박물관장은 1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장경판의 조판기술과 인쇄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의 복원과 각수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의 명에 따라 1236년부터 16년에 걸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현재 합천 해인사에 8만1258판이 보존되어 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조판기술을 계승할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준영 관장은 발표에서 각수가 단순히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기능인이 아니라 판목 재질 선정, 도구 관리, 조판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직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기술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현재, 복합적 역량을 갖춘 각수 양성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없이는 전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관장은 2004년 해인사에서 설립한 ‘장경도감 인경학교’를 사례로 들며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에 있어 전통적 교육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경도감 인경학교’는 전통 판각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경의 역사적 이해와 실습을 통해 판각 기술과 인경술을 전수하고 있다. 안 관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적인 체계가 기술 단절을 막고 종합적인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관장은 또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조판기술 데이터화를 통해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면 전통 기술 보존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의 접근은 전통 기술 보존을 넘어 현대적 활용 가능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앞서 학술대회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 기술의 현대적 전승 방안을 논의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팔만대장경 판각과 역사문화적 가치 재정립 △고려시대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 △팔만대장경의 조판과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인출과 소장처 △동아시아의 목판 현황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이 올해부터 추진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인쇄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전통 목판 인쇄기술의 전승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시상

11월 27일, 불교문화사업단
37편 논문 중 총 8팀 선정



박기경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논문 ‘템플스테이 가치가 글로벌 정체성, 환경 관심, 자아 확장 및 지역사회 반응에 대한 통합적 분석’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템플스테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찰음식 부문 대상은 김예진·정예서·윤승용 경희대 팀의 ‘언론 보도기사로 살펴본 사찰음식에 대한 주요 토픽 및 연도별 변화 분석’이 차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시상식이 11월 2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올해 논문 공모전은 총 37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8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준 높은 논문이 많아 공정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부문 최우수상은 주하정·노환수·이재현 한양대 팀의 ‘템플스테이와 인근 둘레길의 연계 활성화 전략’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윤희수·정성훈·김근현 성균관대 팀의 ‘SNS상에서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 분석’과 송만석 씨의 ‘템플스테이 의제 설정: 템플스테이에 대한 매스미디어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각각 선정됐다.

사찰음식 부문 최우수상은 서선희·임주환·양서윤 이화여자대 팀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사찰음식의 발전 방안’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류용현·양택수·김진선 동국대학교 팀의 ‘사찰음식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과 김민지·최혜준 수원대학교 팀의 ‘사찰음식 체험과 배움의 영향’이 각각 수상했다.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이상훈 교불련 회장 연임
“입문서 집필 사업 추진”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사진〉이 차기 21대 회장직을 연임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11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훈 교수를 제21대 교불련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년간 이어진다.

이 회장은 먼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눈높이 입문서 집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학별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을 위해 불자교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불교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불교 뿌리를 찾는 학문적 연구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이태원서 ‘고산사’ 흔적 발견, 복원 첫 걸음

불교사회연구소 학술 세미나
고산사, 목멱산 아래 위치 추정
‘비보사찰’로서의 역사적 역할
고산사 복원, 용산 불교의 회복



서울 용산은 과거 보광사와 고산사 같은 전통 사찰이 자리했던 불교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과거 목멱산으로 불리던 지금의 남산 아래에 있던 고산사는 조선 초 한양을 지키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로 산과 물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난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도성 주변 십 리 안쪽의 사찰들을 없애는 ‘성저십리 정책’과 근대사를 거치며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11월 22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고산사가 목멱산 아래 이태원 골짜기에 위치했음이 확인되며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능과 용산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용산 지역의 불교문화유산 발굴과 복원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김천수 용산학연구센터장은 발표에서 고산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 시대 문헌과 1915년 제작된 경성지형도를 분석했다. 조선 초기 문헌인 ‘용재총화’와 ‘만기요람’에 기록된 고산사 위치를 근거로 목멱산 아래 이태원 골짜기가 고산사의 터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위영의 산림 관리 기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의 기록을 토대로 고산사가 오늘날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 위수병원 부지와 인접한 이태원터에 자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김천수 센터장은 “고산사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하는 과정은 학술적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후속 연구와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사라진 전통사찰의 복원과 불교역사문화유산 시설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불교의 호국, 인권, 사회 통합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기획됐다”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산 지역 내 전통사찰 복원과 불교역사문화유산 시설 건립을 위한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올해 말 자료집과 논문집으로 발간돼 대중과 학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한국불교미술협회 제32회 협회전

12월 5일~11일, 한벽원미술관서
60여 소속 작가, 60여 작품 출품


김선희 작가의 ‘念’ 외 60여 작품이 선보인다.

불교예술의 정수를 담은 제32회 한국불교미술협회전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각(覺)·각(各)·형(形)·상(像)2’를 주제로 깨달음을 향한 다양한 형상과 상징을 현대적 감각과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1970년 창립된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미술 단체로서 지난 40여 년간 정기전과 특별전을 통해 불교미술의 대중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올해 전시에는 협회 소속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 불교회화, 조각, 공예, 서예 등 약 60점의 작품을 출품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불교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김성렬 작가의 ‘약사여래불’, 김지원 작가의 ‘관세음보살도’, 이창민 작가의 ‘십우도’, 이또킹 작가의 ‘where is my tarb’ 등 전통 불교미술을 현대적 시각언어로 풀어낸 작품이 눈길을 끈다. 김선희 회장의 ‘념(念)’, 신주호 작가의 ‘심연’, 이혜원의 ‘목조보살입상’ 등은 각기 다른 독창적 시각으로 사유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첫날인 12월 5일 오후 5시에는 오프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